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노 주 환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 작품연구논문

별 빛에 투사된 내면세계에 대한  
표현연구

2017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공공미술전공  
류 지 연

별 빛에 투사된 내면세계에 대한  
표현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노 주 환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11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공공미술전공  
류 지 연

# 인 준 서

류지연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 논문개요

현대사회는 물질적 풍요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현대인들은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의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며 변화에 따라 적응을 하며 살아간다. 또한 변해가는 사회에 뒤처지지 않으려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맞추고 삶의 가치와 표준을 정하여 집단의 일원으로써 살아간다.<sup>1)</sup> 누구나 그 안에서 목표를 이루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목표한 것을 이루면서도 공허감에 휩쓸리거나 고독 혹은 불안을 겪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물질화된 현대사회에서 과거에 비해 복잡하고 혼란한 상황을 겪음으로 인해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소외<sup>2)</sup>현상이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가치관 상실과 함께 우리 사회체계 자체를 뒤흔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소외현상으로 인한 정신 상태를 점검하여 치유와 위로를 통해 자기극복이 필요하다.

본인도 현대인으로서 소외현상으로 인한 불안의 감정을 극복하기 위한 작업을 하였다. 밤하늘의 별빛이 일상 속 본인을 사유하는 대상이 되었고, 별빛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위로의 공간을 만들어 자신의 소외로 인해 잠재되어진 내면의 감정을 담아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본 논문은 2016년 제작된 작품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 I 장 서론에서는 본인작품의 연구방향과 목적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 II 장 본론에서는 첫 번째, 작품형성배경으로 본인과 관련하여 소외와 불안한 심리에 대해 언급하고 이와 관련하여 본인에게 별빛이 어떠한지에 대해 서술하였다. 두 번째, 작품 표현으로 작품에서 나타나는 별의 기하학적 구조, 상징적 형상의 의미와 별

---

1) 김해진, 2014, “20세기 이후 인체조각을 통한 인간의 내면세계(감정)표현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시립대학교, p.4

2) 인간소외(人間疎外):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인간성을 박탈당하여 비인간화되는 일.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빛의 표현방법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세 번째, 이를 토대로 본인의 작품에 대해 개별적으로 분석하였다.

제Ⅲ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을 통해 서술한 내용을 정리하고 본인의 작품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발전과제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 론 .....	1
II. 본 론 .....	3
1. 작품형성배경 .....	3
1) 소외 .....	4
2) 불안심리 .....	6
3) 별 .....	9
2. 작품표현방법 .....	11
1) 별빛의 기하학적 구조와 내면세계의 형상화 .....	11
2) 빛 .....	13
3) 빛 투과성 재료 .....	14
3. 작품분석 .....	16
III. 결 론 .....	53

## 참고문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 【작품1】 빛과 별, 84×40×54(cm), Stainless steel, Polycarbonate, LED light, 2016 ..... 16
- 【작품2】 별을 향하여, 100×100×200(cm), Stainless steel, Polycarbonate, LED light, 2016 ..... 20
- 【작품3】 떠다니는 섬, 74×116×22(cm), Stainless steel, PVC film, light, 2016 ..... 23
- 【작품4】 함께하는 섬, 127×81×13(cm), Stainless steel, PVC film, light, 2016 ..... 26
- 【작품5】 별에 집하나, 40×46×55(cm), Stainless steel, Hologram film, 2016 ..... 29
- 【작품6】 떠다니는 섬 中, 53×37×73(cm), Stainless steel, PVC film, LED light, 2016 ..... 32
- 【작품7】 기와바위섬, 73×90×100(cm), F.R.P, Polycarbonate, 2016 ..... 35
- 【작품8】 별 섬, 39×33×37(cm), Stainless steel, Traditional Korean paper, LED light, 2016 ..... 38
- 【작품9】 따뜻한 섬, 28×29×62(cm), Stainless steel, Traditional Korean paper, 2016 ..... 40
- 【작품10】 빛, 형태를 입다 I, 54×36×43(cm), Stainless steel, PVC film, LED light, 2016 ..... 43
- 【작품11】 빛, 형태를 입다 II, 54×60×58(cm), Stainless steel, PVC film, LED light, 2016 ..... 47
- 【작품12】 나를 보는 시간, 25×25×23(cm), PVC film, light, 2016 ..... 50

# I. 서 론

인간은 자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현대사회에 적응하면서 형성된 자기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지 못한 채 현대사회에 맞는 자신을 만들며 살아간다. 자의적 기준 없이 살아가게 되었을 때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확신을 잃고 정체성을 표현하지 못한 상태로 내면의 갈등을 겪게 된다. 내면의 갈등은 회의, 불안, 우울, 좌절 등의 감정을 일으키고, 고독과 공허감에 압도되어 자신의 존재 의미를 상실하여 노이로제 상태에 빠지게 된다.

노이로제의 뜻을 살펴보면 특정 부분에 불안증이 지속적으로 오는 것으로 불안과 우울감이 지속되다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공포신경증<sup>3)</sup>으로 이어지거나 강박신경증<sup>4)</sup>으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가벼운 증상이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증상이 가뻐다 해도 삶의 질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문제는 가벼운 증상을 쉽게 보고 증상을 키우다보면 공황장애가 오거나 정신분열증 증세로 이어지기도 한다.<sup>5)</sup>

본인은 부모에게서 벗어나 자립적으로 사회를 접하게 되는 시기가 되면서부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갈등과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내면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상황에 적응해가는 자신을 보며 끝없이 질문을 하였고 내면의 갈등과 함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되었다. 존재에 대한 불확실함은 살아가는데 있어 불안과 공허함을 안겨주었다.

본인은 일상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바라본 별빛에서 자기소외<sup>6)</sup>로 인해 생긴

---

3) 공포신경증은 현실적인 위험이 없는 것으로 알면서도 현실의 특수한 대상, 관념 및 상황에 대한 심한 공포가 특징인 신경증이다. (두산백과)

4) 강박신경증은 강박관념과 강박행위를 반복하고 지속하는 신경증이다. 강박관념이란 원하지 않으면서도 저지할 수가 없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의식하는 고통스럽고 불합리한 관념, 영상 및 충동을 말하며, 강박관념의 내용은 다양하고, 강박관념을 일으키는 진정한 동기는 의식해서는 건드릴 수 없는 충동이나 소원으로서, 잠재하고 있는 죄악감이 혼란 동기이다. (두산백과)

5) <http://althwldna.tistory.com/search/노이로제>

6) 자기소외 (Entfremdung seiner selbst, 自己疎外): 헤겔 변증법(辯證法)의 기본 카테고리. 자기의외화

불안한 마음을 위로 받았다. 별을 바라보는 시간동안 불안한 나의 감정을 사유하고 위로 받은 별 빛을 만들어 내적으로 고민하던 감정을 드러내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빛이 번져 반짝이는 것을 나타기 위하여 기하학적 구조의 형상과 빛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별을 만들어 자신의 내면을 작품에 담았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외와 불안한 심리에 대해 살피고, 본인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작업의 대상으로 삼은 별빛의 의미에 대해 서술하였다.

둘째, 본인의 작품 분석으로, 작품을 구성하는 기하학적 구조와 상징적 형상의 의미를 살피고 빛을 이용한 표현방법을 서술하였다.

---

(自己外化:Selbstentäusserung)라고도 하며, 마르크스주의로 이어진다. 일면적인 주관·의식·개념 및 이념이 일단 자기를 소외·외화(外化)시켜 반대이기는 하나 마찬가지로 일면적인 객관·대상·실재성 및 자연이 되고, 다음에 그 소외·외화를 부정하여 또 그 소외·외화에서 자기를 회복함으로써 양자의 통일인 구체적인 것, 참다운 것이 생겨난다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 Ⅱ. 본 론

### 1. 작품형성배경

우리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적 인간<sup>7)</sup>으로 가정과 학교, 친구, 단체 등 여러 사회집단에 소속되어 여러 집단을 형성하고 살아간다. 사회집단 안에서 인간은 책임이 따르는 선택을 하며 행동하며 살아간다.

본인은 자립적으로 사회를 접하게 되는 시기가 되면서 자신이 선택하고 사회 안에서 적응한다는 이유로 환경에 맞추며 행동하였다. 선택한 행동은 도로 자신이 나아감에 있어서 한계가 되어 본인의 삶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하였고 갈등과 불안감을 계속적으로 형성하는 문제를 안게 되었다. 본인의 심적 문제는 더욱 자기 자신을 사회 안에서 격리시키며 더욱 움츠러들게 했는데 이시기에 바라본 밤하늘의 별에서 마음을 위로 받았다. 위로 받은 마음을 가지고 다시 현실을 살아가려 했지만 삶은 일정하지 않으며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똑같은 불안을 반복적으로 맞게 되었다. 별빛은 나에게 힘을 주는 객체이자 나에게 공허함과 좌절감을 다시금 느끼게 하여 불안을 안겨주는 대상이 되었다.

우선 본인의 문제를 사회적 병리현상인 소외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여 현대까지 이르는 소외의 학설을 토대로 기술하고 이어서 본인의 현재 불안을 어릴 적부터 시작한 집단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불안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불안의 방어기제로서 나타나는 프로이트의 '자동적 불안'에 대해 서술하였다. 현대사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본인의 내면을 담아 표현의 소재로 사용한 별의 형성배경에 대해 서술하였다.

---

7) 사회적 인간 (社會的人間)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 1) 소외

소외현상은 개인이 사회로부터 거의 완전한 감정적 단절(emotional severance)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무력(無力, powerlessness)·무의미(meaninglessness)·무규범(normlessness)·고립(isolation)·자아소외(self-estrangement) 상태를 뜻하기도 한다. 또한 주변적, 또는 사회와의 격리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sup>8)</sup>

‘소외’는 헤겔<sup>9)</sup>의 첫 저서인 『精神現象學-Phänomenologie des Geistes』(1807)의 「스스로부터 소외된 精神-文化」라는 장에서 최초로 표명되었다. 헤겔에 있어 모든 현상들은 형이상학적 주체자인 절대정신 즉 가이스트<sup>10)</sup>가 스스로를 전개시키면서 스스로의 완전한 의식화에 이르는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이러한 전개는 절대정신이 스스로를 투영시켜 객관화함으로써만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스스로를 투영시키는 과정, 자기 자신의 일부를 자기와는 다른 낯선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과정, 다시 말해서 형이상학적 주체자인 절대정신이 스스로를 정신 아닌 물질로 현상화하는 과정이 곧 소외이며 소외는 정신의 현상화, 물질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정신의 이질성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박이문, 『인식과 실존』, 문학과 지성사, 1982, pp.255~265 재인용) 역사를 절대 정신의 자기실현 과정으로 해석했던 헤겔은 소외현상을 정신의 자기실현 또는 자기 인식의 한 계기 또는 과정으로 규정하였다. 자기 분열과 자기 이화현상으로서의 소외는 다시 자기 통일 속에 동화되기 때문에 절대정신의 실현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졌던

8) 소외 (疏外, alienation) [네이버 지식백과] (교육학용어사전, 1995. 6. 29., 하우동설)

9) 헤겔(G.W.F.Hegel ; 1770~1831) 헤겔은 모든 사건에 숨은 본질을 절대정신이라고 생각했다. 그에 게 이상적인 공동체는 개인과 사회의 자유가 함께 실현되는 사회였고, 이 공동체를 '인륜'이라 불렀다. 대표작 《논리학》에서는 모든 현실과 역사 전개 과정을 변증법으로 파악하며 독자적인 이론을 펼쳤다.[네이버 지식백과] 헤겔 - 절대정신의 철학자 (처음 읽는 서양 철학사, 2007. 11. 20., 웅진지식하우스(웅진씽크빅))

10) 가이스트 (독일어 발음: [ˈɡaɪst])는 독일어 단어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세 가지 영어 명사의 의미 영역을 포함해, 영어 단어의 마음, 정신, 또는 유령으로 번역 될 수 있다. 일부 영어 번역자들은 용어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정신/마음"또는 "정신 (마음)"을 사용하여 기댄다. [네이버 지식백과] (위키백과)

것이다.<sup>11)</sup>

헤겔에 있어 소외란 외적이고 객관적인 현상계와 접촉할 때의 인간의식 상태로서 이때 낯선 외부대상으로 인해 의식은 격리되고 소외된다. 그러나 의식은 대상이 의식의 현상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서야 스스로를 소외로부터 해방시킨다고 한다. 결국 대상은 의식의 현상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의식 외에는 어떠한 인식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철학적 관념론의 핵심이다. 마르크스는 대상화와 소외를 동일한 것으로 보는 헤겔이 인간을 내적 자아로 환원함으로써 외부와 단절시켜 버렸다고 하면서 만약 대상화가 궁극적으로 의식 그 자체로 복귀하는 의식의 환상적 투사라면 자신과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인간의 모든 노력들도 순수한 환상에 불과하고 따라서 소외라는 것 자체가 환상일 것이라고 반박한다. 마르크스에게 소외는 실재하는 대상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상과 관계되는 현실적인 행위의 영역에서만 소외는 제거될 수 있는 것이었다. (של로모 아비네리 (Shlomo Avineri) 『칼 마르크스의 사회사상과 정치사상』, 이흥구역, 까치사, 1983, pp.133~168 재인용)<sup>12)</sup>

마르크스에 이어 사회와 소외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페르디난트 퇴니에스의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 Gemeinschaft und Gesellschaft』 개념에서 퇴니에스는 인간의 종합이 본질적으로 상이한 게마인샤프트<sup>13)</sup>와 게젤샤프트<sup>14)</sup>라는 2개의 토대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았다. 전자가 가족과 같은 사회 단위로서 의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이라면 후자는 이익을 위해 결합한 계약적 관계를 일컫는다. 게마인샤프트에서는 일시적인 분리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지배적인데 비해 게젤샤프트에서는 일시적인 통일에도 불구하고 분리가 지배적이다.<sup>15)</sup> 사회는 게마인샤프트에서 게젤샤프트로 이행하고 있으며 근대 이후 그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11) 김현숙, “소외의 미학-박수근 작품세계의 기초”, 한국근현대미술사학3, 1996, p.49

12) 위의 책, p.50

13) 게마인샤프트 : 독일의 사회학자 F.퇴니에스가 게젤샤프트(이익사회)에 대치하여 사용한 사회의 범주개념.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14) 게젤샤프트 : 독일의 사회학자 F.퇴니에스가 게마인샤프트(공동사회)와 대치하여 사용한 사회의 범주개념.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15) 김현숙, “소외의 미학-박수근 작품세계의 기초”, 한국근현대미술사학3, 1996, p.50

강력한 공동체적 조직이 존재할 수 없는 현대 사회에서 개개인은 분리되고 고립되며 타자와의 접촉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때에만 가능하다. 인간의 결속은 전체적 인격으로서가 아니라 개별적인 이익을 위한 계약으로 대체된 것이다.(『소외』, 정문길, 문학과 지성사, 1984, pp.99~117재인용)

헤겔과 마르크스에 의해 제기된 근대사회의 문제로 소외는 이후 헤겔을 따르는 인간 존재론적 소외론과 마르크스를 따르는 사회 현상론적 소외론으로 크게 대별되어 전개되었다. 기계화, 대형화, 관료화, 합리화, 조직화된 사회형태가 빚은 평준화, 타성화 원자화되어가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위기의식의 고조는 세계양차대전을 겪으면서 실존의 철학과 소외의 사회학을 등장시켰던 것이다.(『소외』, 정문길, 문학과 지성사, 1984, pp.919~32재인용)<sup>16)</sup>

소외의 원인과 형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과 주장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외현상은 현재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급격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사회변동, 사회구조의 복잡성, 과학과 기술의 발달, 조직화와 도시화 등에 따른 가치갈등 현상은 현대인의 현실에 대한 원만한 적응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인간들로 하여금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sup>17)</sup>

## 2) 불안 심리

리스먼 교수는 현대인의 성격을 내부지향형과 외부지향형으로 설명하였다. 1차대전까지 전형적인 성격이란 내부지향형이었는데, 이런 성격형의 인간은 후기 빅토리아 시대의 도덕성을 중히 여기며, 남들보다 앞서려는 강한 동기와 야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가치 평가 측정계인 회전의 의해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초기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정서적으로 억압된 상태로서 강한 초자아<sup>18)</sup>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상태에 있다고 하였다. 현

16) 김현숙, “소외의 미학-박수근 작품세계의 기초”, 한국근현대미술사학3, 1996, p.51

17) 소외 (疏外, alienation) [네이버 지식백과] (교육학용어사전, 1995. 6. 29., 하우동설)

18) 초자아(superego, 超自我) : 프로이트(S. Freud)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주장하는 성격구조의 한 요소. 도덕적 양심의 형성이나 이상(理想) 또는 자아평가의 발달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네이버 지식백

데 오늘날은 외부지향형으로 되어가고 있다. 즉, 앞서기 위해 주위에 ‘맞추려고’ 한다는 것이다. 감정을 송두리째 억압함으로써 의지력과 지성을 구분하고, 결국 외부 규칙을 내재화함으로써 힘을 얻는다는 것이다.<sup>19)</sup>

롤로 메이(Rollo May, 1909~1994)<sup>20)</sup>는 현대인들이 겪게 되는 갈등 속 텅비어있다는 상태의 원인을 살아가는데 있어 어떤 일을 긍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힘을 잃었다는 것으로 말하였다. 즉, 내적인 공허감, 가령 인간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살지 못한다든가,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맺을 수 없다든가, 또는 그가 사는 세계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깊은 절망감과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인간은 자신이 바라고 느끼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sup>21)</sup> 심리학적으로 보면 무감각하거나 느낌이 없는 상태는 마음속에 있는 불안에 대한 자기방어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본인을 방어하고 있는 불안은 프로이트(Freud, Sigmund)의 불안 개념 중 ‘트라우마적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방출되지 못한 자극들이 축적됨으로써 무기력함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동적인 불안’이다.<sup>22)</sup> 가령 어떤 사람이 줄곧 위험한 일에 부딪히게 되고 이것을 극복할 힘이 없을 때는 최종적으로 이 위험을 느끼는 감정자체를 피하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것을 방어기제라고 하는데 자신을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속이며 심리적 상처를 회피하려는 심리를 갖게 된다.

방어 기제는 1894년 프로이트가 처음 제창한 것으로 이성적이고 자의적인 방법으로 자아가 겪는 갈등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심리적 상처를 막고자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회피하는 사고 및 행위를 가리킨다. 프로이트는 방어기제란

---

과] (교육학용어사전, 1995. 6. 29., 하우동설)

19) 롤로메이, 백상창 옮김,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 문예출판사, 2015, p.21~p.22

20) 롤로 메이 (Rollo May, 1909~1994): 미국의 실존주의 상담사이다. 그가 비록 인본주의 심리학에 관여하기도 했지만 그의 철학은 실존주의적 철학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네이버 지식백과] (위키백과)

21) 위의 책, p.27~p.28

22) 불안(ANXIETY) [네이버 지식백과] (정신분석용어사전, 2002. 8. 10. 서울대상관계정신분석연구소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초아(id)<sup>23)</sup> 충동이 의식에 공개적으로 나타나려는 힘과 그와 대립되는 초자아(superego)의 압력으로부터 그 개인의 자아(ego)<sup>24)</sup>를 보호하기 위한 자아(ego)의 전략이라고 정의하였다. 자아(ego)가 원초아(id)와 초자아(superego)의 갈등 조절에 실패하면 불안에 빠질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자아는 원초아(id)에 대해서 방어를 하게 된다.<sup>25)</sup> 본인은 원초아(id)가 명하는 긴박한 충동의 발동을 간섭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억압하여 충동을 위험성이 없는 방향으로 돌리려 하는 과정에서 조절에 실패하게 되면서 공허감이나 무력감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견딜 수 없는 불안과 절망감이 뒤따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간의 모든 귀중한 능력을 차단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닥쳐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심리적 위축을 하고 경우에 따라 권위주의에(파시즘, 나치즘)항복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sup>26)</sup>

롤로 메이(Rollo May, 1909~1994)는 인간의 불행의 근원은 현대사회에서 가치관을 상실하고 자기의식 또한 상실 되어 인간의 고향인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느끼지 못한 채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확신을 잃어 인생의 불가피한 비극의식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건전한 자기의식으로 불안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자아의식을 확립하고 자신의 신체감과 감정을 확인하여 참된 자기를 인식하고 이를 내적인 힘의 원천으로 삼아 작품으로써 본인의 내면 감정을 표현하였다.

---

23) 원초아[原初我, id]: Freud의 정신분석이론에서 사용된 리비도의 성격과 동일 수준에서 성적 본능과 직결되는 일종의 욕구이며, 인간의 무의식 세계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본능적인 충동성을 자극하는 정신체계라고 볼 수 있다. 원초아는 신생아 때부터 존재하는 정신 에너지의 저장고이며, 이 원초아로부터 나중에 자아와 초자아가 분화되어 간다. 인간의 성격은 곧 원초아(id), 자아(ego), 초자아(super ego)의 세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네이버 지식백과] (교육심리학용어사전, 2000. 1. 10., 학지사)

24) 자아(自我, ego, self) : 자신의 동일성 또는 연속성을 의식하는 주체를 가리킨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의식된 성격의 부분으로서 충동을 조절하여 현실에 적응하도록 하는 정신구조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교육심리학용어사전, 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1. 10., 학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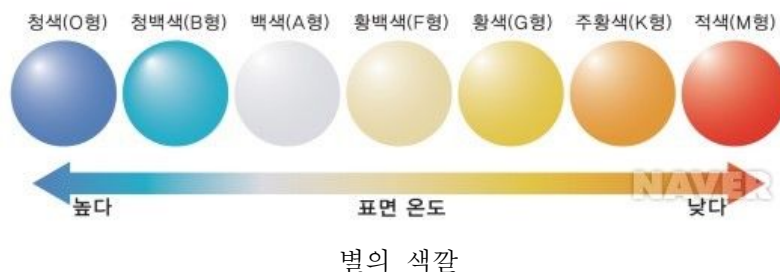
25) 방어기제 (防禦機制, defense mechanism)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6) 롤로메이, 백상창 옮김,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 문예출판사, 2015, 29p

### 3) 별

예술에서 빛의 의미는 자연을 초월하여 정신적인 것을 가리키고 있다. 상징적인 빛에 대해 철학자 플라톤(Platon)은 "현실의 지고한 선"이라 하였고, 플루티누스(Plotinos)는 "빛은 정신의 표시"라 하였다.<sup>27)</sup> 이와 같이 빛은 예술가들에게 정신 세계를 창조하게 하는 대상이 되어오며 조형의 세계에서 빛은 예술가들에 의해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sup>28)</sup> 본인은 일상이 끝나고 바라본 별빛에서 심상의 변화를 느끼게 된 대상인 별빛과 본인의 관계를 과학적 개념을 살펴 설명하고 본인의 환경과 관련하여 별의 의미를 서술하도록 하였다.

별은 과학적으로 태양처럼 핵융합 반응에 의해 열과 빛을 내는 천체를 말한다. 우주공간의 가스와 먼지가 거대한 덩어리로 군데군데 응집되어 서로간의 인력에 의해 모이면서 커지게 된 것이 일정한 크기 이상이 되면서 내부온도가 높아지고 핵반응을 일으켜 별로 성장하게 된다. 이로 인해 모든 별들은 높은 열에너지와 강렬한 빛을 내는 가스덩어리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별빛은 육안으로 보게 되면 모두 비슷하게 빛나고 있지만 망원경을 통해 자세히 보면 각각의 별들이 표면온도에 따라 방출된 빛의 스펙트럼에 따라 푸른색, 노란색, 주황색, 흰색, 보라색을 띄며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생성된 지 얼마 안 된 별은 온도가 높아 푸른색을 띄고 소멸되어 가는 별은 온도가 낮아 붉은색을 띤다.<sup>29)</sup> 별 빛은 특성에 따라 다른 빛을 나타낸다.



27) 서영상, 「빛의 조형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여수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2001, p.38  
 28) 김정희, 「도시풍경과 빛의 사진적 고찰」,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2008, p.4  
 29) 별의 색깔 - 별에도 컬러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대단한 하늘여행, 2011. 4. 8., 푸른길)



빛나고 있는 별 30)

항성의 빛을 반사시켜 빛을 내는 행성, 위성, 혜성등과는 달리 별은 내부의 에너지를 통해 빛을 내어 별의 존재를 밝히고 있다.<sup>31)</sup>

감정표현에 제약을 두고 공허함과 불안의 감정을 안고 사는 본인과는 다르게 별은 내부에너지로 자신이 죽을 때까지 본연의 빛을 내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본인은 이러한 별을 동경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자신에 대해 사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 삶에 대한 의지를 되새기거나 현실의 한계에 부딪혀 좌절하였을 때의 답답함과 불안함을 풀어내며 현실을 벗어난 다른 세계를 꿈꾸곤 했다. 별은 현재의 자신을 잠시 위로하기도 하고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의 또 다른 한계에 부딪치면서 위로 받은 것이 상실되고 다시 불안한 감정을 갖게 되어 본인의 불안한 감정을 다시금 인지하게 해주었다. 본인에게 별은 자연에서 빛을 내는 동경의 대상이자 상상의 도피처이고, 불안에 대한 극복의지를 형상함과 동시에 현실에서 극복하지 못함을 확인하게 해주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피하기만 했던 자기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고 별을 바라보는 행위와 연결성을 찾아 작품배경을 서술하였다.

30) 좌<https://www.spacetelescope.org>, 우<http://pics-about-space.com>

31) 별 (star)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 2. 작품표현방법

### 1) 별빛의 기하학적 구조를 이용한 내면세계의 형상화

별은 본인에게 소외로 인해 확인하지 못한 본인의 내면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이다. 별빛의 조형적 특성을 살피고, 현실에서 본인을 드러낼 수 있는 또 다른 세계인 형상에 대해 서술하였다.

별빛은 방사형구조로, 한 점을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방향성을 띄고 있다. 그래서 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는 별은 삼각형으로 둘러싸인 다각형의 모양을 하거나, 가상의 원안에서 한 점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바깥쪽으로 뻗은 여러 선들로 이루어진 덩어리로 표현한다. 별을 그리는 것에서 공통적으로 방향성을 갖는 선(line)을 사용하였다. 본인 또한 별빛을 조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한 점으로부터 방향성을 갖는 선 요소<sup>32)</sup>를 기본으로 한 도형들로 구조화 하였다. 별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기 위해 방향성과 운동감을 표현할 수 있는 기하학적 도형들로 구성하였다.

기하학적 도형 중에서 중 삼각형은 사각형의 직각이나 오각형이상의 다각형이 지니는 둔각에 비해 예각으로 이루어져 있어 시각적으로 강한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는 요소이다.<sup>33)</sup> 정삼각형은 각이 모두 같아 균등하게 세 방향으로 방향성을 띄어 안정적이고 썩기 모양의 날카로운 예각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은 한쪽방향으로 강한운동감을 나타내어 불안정함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삼각형이 두 개 이상 결합하면서 또 다른 기하학적 도형을 만들 수 있다. 삼각형을 기본으로 하는 기하학적 도형들의 각 부분이 모여 한 점을 향해 피라미드형으로 집결되면서 강한 방향성을 보이며, 각기 다른 삼각형들을 여러 개 모여 균집될 경우 역동적 움직임의 효과는 커지게 된다. 본인은 각을 통해 방향성과 운동감을 형성하는 기하

32) 선 요소(line element): 두 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1차원 공간 객체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2016

33) 김홍기 저, 『건축 조형 디자인론』, 기문당, 2008, p.70

학적 도형으로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표현하지 못했던 내면의 감정들을 (평온함, 긴장감, 불안감) 담아내었다.

별빛을 통해 내면감정을 기하학적 구조로 표현함을 보였다. 이러한 기하학적 구조는 감정에 따라 변형된 별의 형상을 하고 있다.

별을 본인만의 세계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별 섬’시리즈는 섬의 특성을 반영하여 본인의 내면을 드러내었다.

섬은 육지와 떨어진 외딴 곳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육지나 이웃 섬으로의 왕래가 가능하며 그 존재를 확인 할 수 있다. 본인의 내면세계를 반영하지만 실제 하지 않는 섬의 존재를 별의 기하학적 구조와 빛을 통해 나타내어 본인의 내면세계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섬에서 나타나는 집은 본인이 접하는 사회 중 혈연관계로 엮여 삶에 기초가 되는 공동체인 가정을 사회 중 가장 기초되는 공동체로 보고 본인이 접하는 모든 사회를 집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별 섬’은 본인이 사회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면서 새로운 환경으로 부터의 유입과 적응력에 따라 섬에 맞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기도 한다.

‘별 섬’에서 집은 필요한 것만을 갖추고 있거나 필요한 개구부나 빛이 없기도 하다. 이것은 자신이 섬과 관계하는 것들, 즉, 세상의 관계를 뜻하기도 하다.

환경에 대한 본인의 태도를 담아내고자 한 작품들로, 별을 하나의 세계로 생각하여 본인만의 섬과 집을 담아 별로 표현하였다. ‘별 섬’은 현재 자신을 파악하는 공간이자, 현재로부터 떨어져 본인의 감정을 확인하기 위한 공간이 된다.

‘별 섬’ 시리즈는 별의 구조적 특징을 변형하여, 섬을 이루는 암석과 삶의 형태를 나타내는 집을 기하학적 구조로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빛과 별], [별을 향하여]에서 별은 정삼각형에 가까운 도형으로 이루어진 12체의 안정된 공간을 통해 본인의 자유로운 표현을 가능하게 해 준 구조이다.

[별 섬], [따뜻한 섬], [함께하는 섬], [떠다니는 섬], [별에 집하나], [떠다니는 섬]은 기하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섬과 집을 상징적 형상의 별로 표현하였다.

[빛, 형태를 입다 I][빛, 형태를 입다 II]에서는 ‘별 섬’시리즈에서 주가 되었던 섬과 집을 없애고 기하학적 구조로서만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본인의 내면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별이 빛나는 상상의 이미지만 갖고 기하학 구조들로 별을 표현하였다.

## 2) 빛

별은 인간의 삶처럼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통해 존재하고 내부에너지로 빛과 아름다운 색을 드러내고 있다. 작품에서 ‘빛’은 별을 표현하는 수단이자 본인의 내면의 태도를 확인하게 해주는 근원적 요소이다.

별빛을 표현하기 위해 전기에너지로 빛을 발하고 있는 조명을 사용했다. 여기서 빛은 입자(광자)의 흐름으로 에너지를 전달하고, 각각 파장에 따라 여러 가지 특성을 지녀 반사, 굴절, 회절, 직진, 무형, 간섭 등으로 무언가에 부딪혀서 그 모습을 나타내는 특성을 갖는다.<sup>34)</sup> 본인은 이러한 빛을 의도에 맞게 형상과 어우러지도록 설치하여 형상의 색을 드러나게 하고, 그 주위를 물들이도록 하여 작품을 통해 내면세계를 직간접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빛의 설치방법에 따라 소외로 인한 자신의 태도가 나타난다.

[떠다니는 섬], [함께하는 섬], [별에 집하나], [빛 형태를 입다 II]에 빛을 외부에 설치하여 ‘본인의 본성’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환경에 물들어버린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빛은 별 형상의 외부에 설치되어 환경과 하나 된 본인을 그림자로 함께 나타나는데, 형상에 따라 본인이 보여 지는 것 뿐 만아니라 그림자의 늘어짐과 사라짐을 통해 환경에 자기소외로 인한 우울함과 상실감 또한 나타나게 하였다. [빛과 별], [별을 향하여], [빛], [형태를 입다 I], [별섬], [떠다니는 섬중], [기와바위섬], [따뜻한 섬], [나를 보는 시간] 은 별 형상 안에 빛을 설치하여 본인의 불안한 감정들을 극복하고 삶속에서 존재를 지닌 한사람으로서 드러내고자 하

34) 김정희, 「도시풍경과 빛의 사진적 고찰」,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2008, p.3

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림자는 빛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있고 그대로 작품 주변을 물들여서 주어진 환경 안에서 주체성을 가진 인간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형상과 빛의 설치 방법에 따라 자신을 소외하였던 본인을 파악하게 된다. 그로인하여 본인에게 생긴 불안감으로 인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채 적응하려던 자신을 빛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게 된다.

### 3) 빛 투과성 재료

별에 빛이 없으면 별빛을 인식할 수 없듯이 작품을 인식하기 위해서 빛이 필요하다. 빛은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광원으로부터 직진하여 물체에 닿으면 반사된 빛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물체를 볼 수 있게 된다. 물질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의 양은 표면의 색깔, 질감, 조명 각도, 흡수력 등에 따라 변하게 된다.<sup>35)</sup>

기하학적 구조로 이루어진 형상의 색을 빛에 따라 내면감정이 공간에 보여 지도록 재료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물질적 재료와 색에 따라 본인의 감정을 더욱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형상과 빛이 만날 때, 재료와 색을 통해 표현을 극대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빛이 투과할 수 있는 다양한 필름과 한지, 폴리카보네이트 등을 사용하고 색을 통하여 본인의 상태를 직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빛과 별], [별을 향하여]는 오각뿔로 이루어진 스텐프레임 위로 폴리카보네이트를 붙여 빛이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별 섬], [따뜻한 섬]은 스텐 프레임 위로 한지를 사용하였다. 한지는 반투명하여 작품에서 부터 은은한 빛이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데 사용하였고 한지를 쓰는 작업은 집과 연관된 내용이 담겨있다.

PVC필름과 홀로그램 필름은 빛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재료로 빛과 색의 사용에 따라 투과 반사등으로 내면세계와 내면의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 유용한 재료

---

35) 투과 (transmission, 透過) ( 영화사전, 2004. 9. 30., propagan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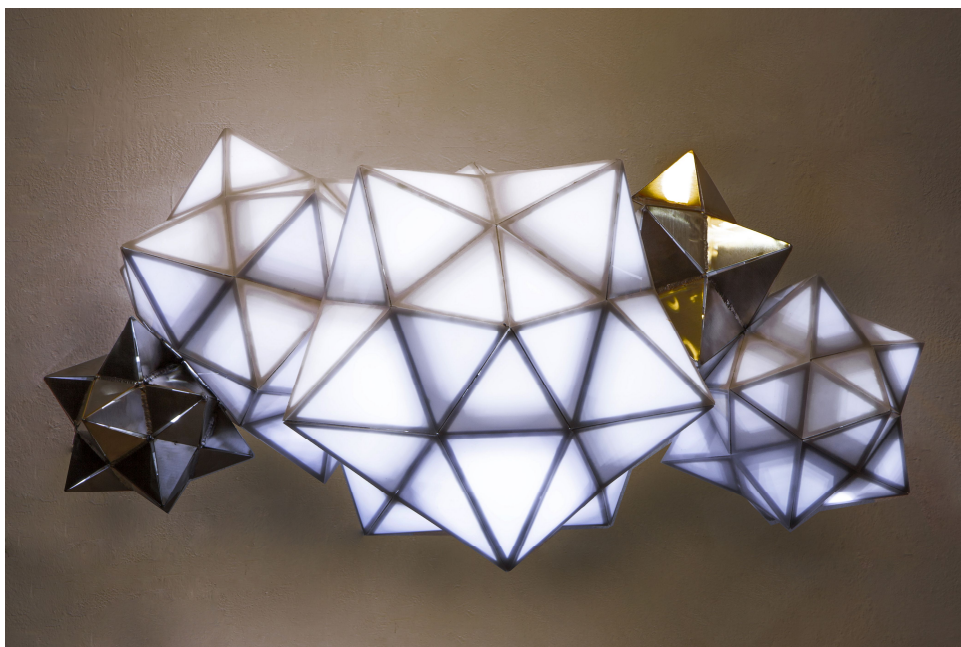
이다.

[함께하는 섬], [떠다니는 섬], [떠다니는 섬中], [빛, 형태를 입다 I]는 스텐 프레임 위로 PVC필름을 사용하였다. 색을 선택할 때는 하나의 섬을 만드는 것을 생각하며 본인의 내면의 분위기에 맞는 느낌으로 색을 골라 붙였다. PVC필름의 색은 본인이 복잡적이고 혼란스러운 환경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고 감정에 따라 선택하여 기하학적 구조를 완성해 나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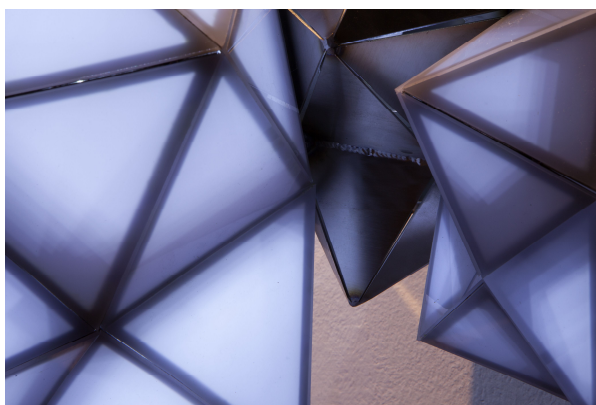
[빛, 형태를 입다II], [별에 집하나]은 스텐 프레임위로 홀로그램 필름을 사용하였다. 본인의 감정을 PVC로 하나하나의 색을 선택하여 나타내었다면 홀로그램필름은 별의 반짝이는 느낌을 주는 동시에 화려하거나 오묘한 색이 중첩되고 반사되어 우연의 효과가 나타낼 수 있어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하였다.

[기와 바위섬]은 전의 섬 시리즈와는 다르게 스텐 프레임 사용을 하지 않고 자신을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을 드러낸 작품으로 기와와 바위라는 재료적 특징이 보이도록 작품이다. 색 묘사를 통해 현재 자신의 답답하고 우울함을 표현하고 바위의 구멍을 빛을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폴리카보네이트로 마감한다.

### 3. 작품분석



【작품 1】 빛과 별



【작품 1】 빛과 별 Detail Cut

## 【작품 1】 빛과 별

연도 : 2016년

크기 : 84x40x54(cm)

재료 : Stainless steel, Polycarbonate, LED light

### 제작방법

1. 정십이면체 각각의 면에서 뿔이 올라오는 형태로 별을 제작하기 위하여 1.2t 스테인리스 스틸 판을 사용하여 폴리카보네이트를 붙일 뼈대용 오각형틀(정십이면체를 구성하는)와 삼각형틀(오각뿔을 구성하는)을 레이저 커팅 한다.
2. 위와 같은 형태로 빛이 새어나오는 스테인리스 스틸 별을 만들기 위해 뼈대용 오각형 틀을 커팅하고 오각형과 약 1cm의 길이 차이를 준 삼각형을 레이저 커팅 한다.
3. 정십이면체를 만들기 위해 커팅 한 오각형 모서리를 이어 용접한다. 각 면의 모서리에 커팅 한 삼각형 밑면을 대어 용접한다. 오각형에 다섯 개의 삼각형이 모이면 그 삼각형들을 이어 용접하여 뿔을 완성시킨다.
4. 각각의 별 형태를 만든 뒤 5개의 별을 용접하여 이어 준다.
6. 완성된 별을 벽에 걸어 전시할 수 있도록 완성된 별 뒷면에 홈을 낸 스텐3t 판을 용접한다. (약 3cm정도의 홈을 25cm간격으로 두 군데를 뚫어놓는다. 이는 벽에 걸어놓을 판의 L자 고리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이다.)
7. 벽면에 4.과정을 한 것을 걸 수 있도록 스텐 판3t에 홈 위치를 맞춰 L자 고리를 아르곤 용접하여 지지대를 만든다.
8. LED조명을 별 뼈대안쪽에 붙인다.

9. 용접이 끝난 별의 뼈대에 맞춰 폴리카보네이트를 잘라 돼지표 본드를 이용하여 스텐 위에 붙인다.

#### 작품설명

현실로부터 도피처가 되어 안정을 주었던 별은 정오각형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오각형은 각 변에서 맞은편 꼭짓점을 대각선으로 그어내면 분할되는 큰 변과 작은 변이 생기는데 이 변들은 황금비율을 이루고 있다.

오각형의 균형미는 유기적 생명체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많은 꽃들은 꽃잎이 다섯개 달린 정오각형을 취하고 있고, 바닷가의 불가사리도 오각형이다. 이처럼 생물체에는 오각형의구조가 많이 나타나 있다.<sup>36)</sup>

이렇듯 정오각형은 균형미와 함께 안정감을 준다. 이러한 안정감을 가진 오각형을 결합하여 12면체를 만들었다. 12면체는 본 작품을 이루는 기본적인 틀로 본인에게 안정감이 되는 구조이다. 안정됨을 바탕으로 12면체 각 면과 오각뿔을 결합한다. 이때 오각뿔은 예각삼각형으로 이루어져있고 예각삼각형으로서의 최대의 각이 드러나도록 하여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이 작품에서 별은 불안감이 최소화된 공간이 된다. 공간은 사람의 행태에 따라 그 공간의 정체성을 지닌다. 본인은 별이란 공간 안에서 은은하게 빛을 내고, 공간과 함께 존재하는 한사람이 된다.

위의 5개의 별은 하루하루 다른 일상 속에서 움직임에 따라 빛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인다. 가운데 큰 별은 제일 큰 공간으로 빛을 꽉 채우고 있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 두 번째와 네 번째 별은 공간이 가운데 별 보다 작고 빛 또한 약하여 본인이 공간 안에서 움직임이 작다는 것을 보여준다. 첫째와 다섯 번째 별은 빛이 별의 공간 틈사이로 미세하게 나타나고 있어 본인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공간을 나타내었다. 다섯 개의 별들을 일직선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나열하여

---

36) 김홍기 저, 『건축 조형 디자인론』, 기문당, 2008, p85

결합하였다. 별은 현실에서 도피처로써 최대한 안정적인구조를 유지하며 그 곳에서 본인의 심리상태를 확인하며 소외되었던 ‘나’를 확인하게 해주는 작품이다.



【작품 2】 별을 향하여

## 【작품 2】 별을 향하여

연도 : 2016

크기 : 100x100x200(cm)

재료 : Stainless steel, Polycarbonate, LED light

### 제작방법

1. 스테인리스 3t 판을 이용하여 원뿔대 형태의 좌대를 만든다. (후에 별모양을 단 사다리를 버티게 하기 위해 원뿔대 안에 각 파이프로 골조를 만들어 함께 용접함)
2. 스테인리스 2x2 각 파이프 2개를 같은 모양으로 벤딩한다.
3. 벤딩한 각파이프를 평행으로 놓고 사이에 스테인리스 2x2 각파이프를 사다리 발판의 구조처럼 아르곤 용접하여 흰 듯 한 사다리 형태를 만든다.
4. 사다리위에 달릴 정십이면체 각각의 면에서 뿔이 올라오는 형태의 별을 제작하기 위하여 1.2t 스테인리스 스틸 판을 사용하여 폴리카보네이트를 붙일 뼈대용 오각형형태(정십이면체를 구성하는)와 삼각형형태(오각뿔을 구성하는)를 레이저 커팅 한다.
5. 정십이면체를 만들기 위해 커팅한 오각형 모서리를 이어 아르곤 용접한다. 각 면의 모서리에 커팅한 삼각형 밑면을 대어 아르곤 용접한다. 오각형에 다섯개의 삼각형이모이면 그 삼각형들을 이어 용접하여 뿔을 완성시킨다.
6. 뿔의 삼각형틀에 맞춰 폴리카보네이트를 자른다.
7. 별모양의 스테이리스 스틸 뼈대에 돼지표 본드를 이용하여 폴리카보네이트를 붙인다.
8. 과정1에서 만든 좌대와 과정 2.3.에서 만든 사다리, 과정4-7에서 만든 별은

5Ø 볼트를 각각에 아르곤 용접하여 너트로 조여 조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작품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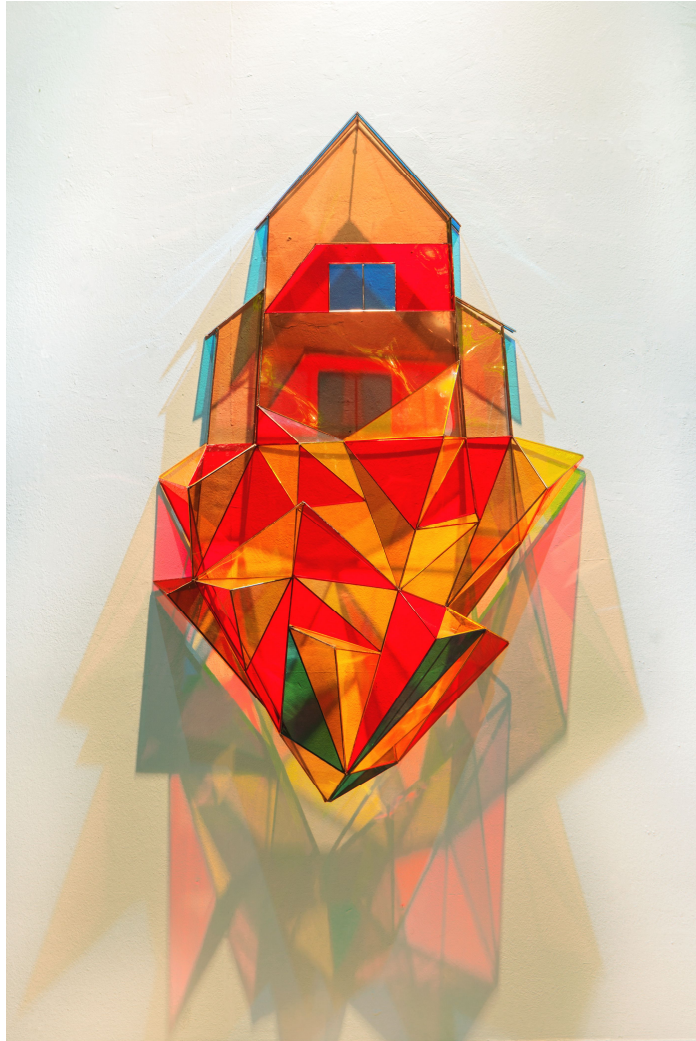
본 작품에서 [빛과 별]과 같은 의미의 공간(별)과 빛이 있다.

[빛과 별]에서 5개의별을 나열하여 빛들을 표현하였지만 본 작품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빛이 변하는 것으로 심리를 표현하였다. 공간(별)안에서 빛은 5초 간격으로 서서히 드러나고 사라짐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별에는 사다리를 연결하여 자신의 공간(별)에 다가가고자 함을 나타낸다. 별과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형상은 마치 어두운 밤이 되면 길을 밝혀주는 가로등과 같은 형상으로 표현하였다.

공간(별)과 나를 이어주는 사다리는 바람이 불어 휘어진 듯 보이게 만들었다. 별과 직접 연결 되어있지만 바람을 이겨내야 공간(별)에 닿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공간(별)에 가까워지면 빛을 내는 원동력이 어떠한 움직임으로 빛을 내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다리를 받치고 있는 원뿔대는 공간(별)이 사다리를 통해 갈 만큼 가까워져 생긴 그림자를 표현하였다. 별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자하는 의지를 작품을 통해 나타내었다.



【작품 3】 떠다니는 섬

### 【작품 3】 떠다니는 섬

연도 : 2016년

크기 : 74x116x22(cm)

재료 : Stainless steel, PVC film, light

#### 제작방법

1. 상상한 떠다니는 섬을 스케치한다.
2. 3∅ 스테인리스 스틸 환봉을 구상한 형태에 맞춰 절단기로 잘라 용접한다.
3. 용접한 스테인리스 스틸 환봉 선에 맞춰 PVC 필름을 자른다.
4. 스테인리스 스틸 환봉위에 자른 PVC 필름을 폐지표 본드로 붙인다.
5. 완성된 작품이 외부의 조명을 통해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벽에 걸어 설치한다.

#### 작품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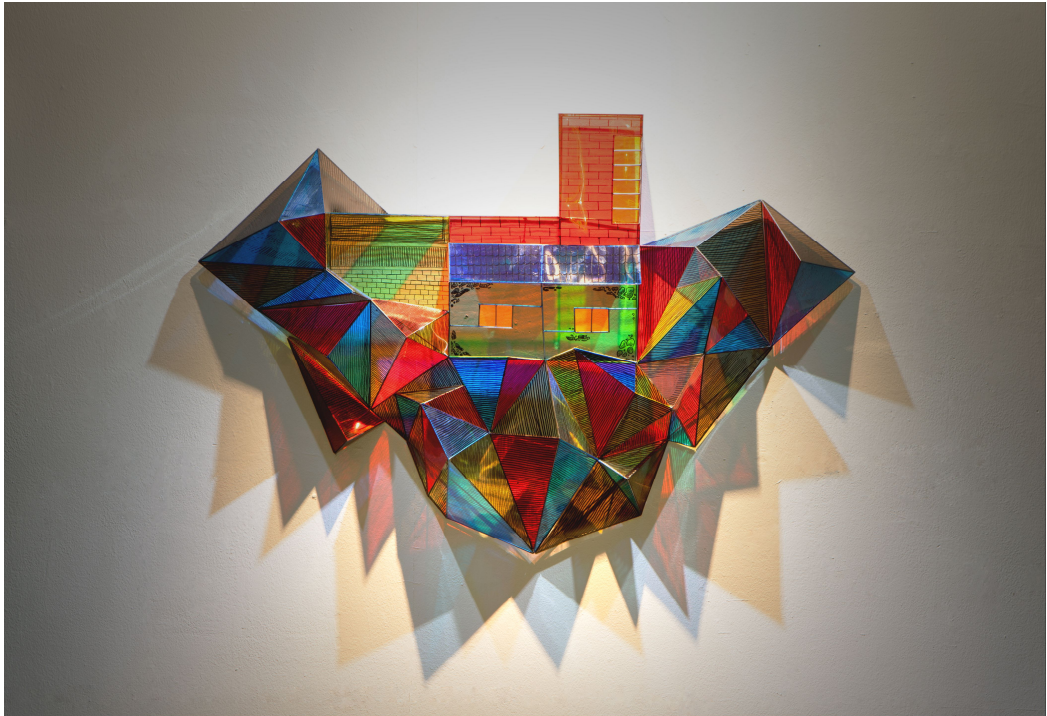
별은 무한한 어둠 안에서 빛나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 빛나는 별을 자세하게 바라보니 섬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고 느껴졌다. 현실에서 섬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수면 위로 드러난 육지의 높은 부분만 볼 수 있다. 하지만 떠다니는 섬(별)에서는 바다에 잠겨있는 육지부분까지 드러나게 하여 바다에 잠긴 섬이 아닌 어둠속을 떠다니는 섬으로 나타나도록 했다. 섬은 세상과 격리되어 있어 고독감과 상응하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이곳을 통해 나의 행동과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실제 섬은 암석으로 이루어져있고 침식이나 화산분출로 인해 섬의 모습이 나타나며 살기 가능한 곳인지에 따라서 삶의 형태가 나타난다. 작품 속에서 떠다니는 섬을 구성하는 것은 각각 다른 색과 각을 갖는 기하학도형들이 서로 다른 방향성을 띄며 섬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삶의 형태 여부는 집과 빛을 통해 보여 진다.

섬 위에는 집 하나가 로켓 같은 형상으로 언제든 날아갈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섬을 이루는 기하학도형들은 하강하면서 깎인 듯 한 빨들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집은 위를 향하고 섬의 구조는 아래를 향하여 각자 다른 방향성을 띄고 있다. 마치 하나의 섬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집같이 보인다. 그리고 이 섬에는 빛이 존재하지 않아 누군가 살고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다. 집에는 빛이 없고 외부의 빛만이 섬의 존재를 밝혀준다.



【작품 4】 함께하는 섬

#### 【작품 4】 함께하는 섬

연도 : 2016년

크기 : 127x81x13(cm)

재료 : Stainless steel, PVC film, light

#### 제작방법

1. 상상한 떠다니는 섬을 스케치한다.
2. 3∅ 스테인리스 스틸 환봉을 구상한 형태에 맞춰 절단기로 잘라 용접한다.
3. 용접한 스테인리스 스틸 환봉 선에 맞춰 PVC 필름을 자른다.
4. 스테인리스 스틸 환봉위에 자른 PVC 필름을 돼지포 본드로 붙인다.
5. PVC필름 위에 매직으로 재질을 그려준다.
5. 완성된 작품이 외부의 조명을 통해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벽에 걸어 설치한다.

#### 작품설명

[함께하는 섬]은 떠다니는 섬 중 하나로 섬을 구성하는 도형들은 파란색 빨간색 갈색으로 이루어져있다. 각각의 프레임 안에서 도형들은 각각의 색을 띄며, 다른 색들과 만나 섬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루어진 뿔들은 앞을 향하기도 하지만 위나 아래, 서로 다른 방향성을 조금씩 나타내고 있다. 서로 다른 색이 만나도 조화는 이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강해지며 혼란스러워진다.

파란색, 빨간색, 갈색으로 이루어진 어두운 느낌의 강렬한 섬에는 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지붕이 있고 불을 피울 때 나는 연기를 내보내는 굴뚝이 있고 빛이 드

나들 수 있는 창문이 있는 집이 있다. 집주변의 면에 벽돌과 지붕을 묘사하여 드로잉 하여 제법 그럴듯하게 집의 모습을 갖추고 있도록 표현하였다. 하지만 외부로 드나들 수 있는 문과 빛이 없어서 사람이 살고 있는 것 또한 알 수 없다. 외부의 빛만이 이 섬이 존재를 드러낸다.

서로 다른 성향의 부모님이 가정을 이루게 되어 자식으로서 혼란을 겪을 때나, 사회 안에서 새로운 환경을 만났을 때 혼란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을 섬으로 표현 하였다.



【작품 5】 별에 집하나

## 【작품 5】 별에 집하나

연도 : 2016년

크기 : 40x46x55(cm)

재료 :

### 제작방법

1. 상상한 떠다니는 섬을 스케치한다.
2. 3 $\emptyset$  스테인리스 스틸 환봉을 구상한 형태에 맞춰 절단기로 잘라 용접한다.
3. 3t 판과 20 $\emptyset$ 봉 파이프를 수직으로 용접하고 위 과정에서 용접한 섬 형태 뒷면과 용접한다. (벽에 고정하기 위함이다.)
3. 용접한 스테인리스 스틸 환봉 선에 맞춰 홀로그램 필름을 자른다.
4. 스테인리스 스틸 환봉위에 자른 홀로그램 필름을 돼지표 본드로 붙인다.
5. 완성된 작품이 외부의 조명을 통해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벽에 걸어 설치한다.

### 작품설명

[별에 집하나]의 섬의 구조는 집이 있는 부분만 기하학적 구조들이 감싸고 있는 듯이 표현하여 [떠다니는 섬] [함께하는 섬] [떠다니는 섬中]에서 다각형의 빨로 섬을 이룬 것과는 다르게 하나의 덩어리 감을 주어 안정적이게 보이도록 하였다. 전 작품과는 다르게 작품에 홀로그램 필름을 사용하여 빛이 반사되어

나타나게 하였다. 홀로그램 필름으로 섬을 구성함으로써, 전에 PVC필름으로 각각의 색을 보았던 것과는 달리, 각각의 면에서 외부의 빛에 따라 여러 색을 내고 빛을 반사하고 있다.

외부의 빛이 섬과 함께 어우러지도록 설치했다.

[떠다니는 섬]과 [함께하는 섬]은 벽에 걸려 외부의 빛을 통해 벽 뒤로 그림자가 바로 맺혀 공간 안으로 빛이 존재하지 않고 벽 뒤로 사라지도록 표현하였지만 [별에 집하나]는 벽에 바로 붙지 않고 전시 공간에 떠서 외부의 빛을 받고 간격에 의해 작품의 형태에 따른 그림자가 서서히 벽 뒤로 맺히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작품 하부를 필름으로 막지 않아서 빛이 들어오고 나감으로 인한 새로운 그림자도 생기게 된다.

작품이 빛을 받고 내보내는 과정을 통해 외부 환경에 흡수하거나 반사하여 하나의 별로써 빛을 내고 있다.



【작품 6】 떠다니는 섬中



【작품 6】 ‘떠다니는 섬中’ (Detail cut)

## 【작품 6】 떠다니는 섬中

연도 : 2016년

크기 : 55x37x73(cm)

재료 : Stainless steel, PVC film, LED light

### 제작방법

1. 상상한 떠다니는 섬을 스케치한다.
2. 3 $\emptyset$  스테인리스 스틸 환봉을 구상한 형태에 맞춰 절단기로 잘라 용접한다.
3. 용접한 스테인리스 스틸 환봉 선에 맞춰 PVC 필름을 자른다.
4. 스테인리스 스틸 환봉위에 자른 PVC 필름을 폐지포 본드로 붙인다.
5. 완성된 작품에서 빛이 나올 수 있도록 내부에 조명을 설치한다. 전선은 환봉을 따라 배선되도록 하였다. (PVC 필름에 중간 중간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철사로 묶어 전선이 고정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한다.)

### 작품설명

[떠다니는 섬], [함께하는 섬]은 상상한 공간을 구체화시켰다면 [떠다니는 섬中]은 실제 존재하는 섬을 모티브로 하여 바다와 섬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다. 태국의 해상국립공원 팡야만 (Phang Nga Bay)에 있는 로켓 섬을 참고 만들었다. 이 섬은 해수침식작용에 의해 아래쪽이 계속해서 깎여서 쓰러질 가능성이 있어 후에 섬이 서있을 수 있도록 보강작업을 할 것이라고 했다. 본인은 작품을 통해 쓰러지

지 않고 굳게 서있는 별 섬을 만들었다.

이 작품은 서있는 형상을 하여 전시 공간 안에 설치하였다.

[떠다니는 섬], [함께하는 섬]과 마찬가지로 기하학 구조의 뿔들로 섬들을 구성하였고 실제 바다에는 물이 있고 섬에는 바위가 있다. 작품의 섬을 구성하는 기하학적 구조들은 실제 섬의 바위들을 생각하며 만들었다. 실제 섬의 암석과 같은 느낌을 주도록 하여 기하학적 구조들은 급격한 방향성을 띄지 않는다. PVC필름의 색을 사용할 때는 바다와 바위를 연상시키는 푸른색과 갈색, 노란색을 많이 사용하였다. 작품 안에서 강한 빛이 나오게 하여 전시공간이 별 섬이 가지고 있는 색으로 물들게 하였다. 실제 별은 내부에너지를 통해 빛을 스스로 낸다. 작품 또한 안에서 빛을 밝혀 스스로 빛을 내는 별 섬이 되도록 하였다.



【작품 7】 기와바위 섬

## 【작품 7】 기와바위 섬

연도 : 2016년

크기 : 73x90x100(cm)

재료 : F.R.P, Polycarbonate

### 제작방법

1. 반듯한 판에 기와바위섬을 스케치하고 스케치한 형태에 맞춰 나사못을 박아 준다.(흡의 양이 너무 많이 붙었을 경우 무너지거나 갈라질 수 있으므로 방지하기 위함이다)
2. 점토로 형태를 잡아가며 표현한다.
3. 점토 작업이 끝나면 석고로 틀을 제작하고 대형 틀에 합성수지를 발라 원형 작업을 한다.
4. 합성수지가 완전 경화하면 석고 틀을 깨내고 원형이 나오면 빛이 나오는 부분을 핸드밀러로 잘라내고 폴리 빠대를 이용하여 기포를 메우고 면을 잡는다.
5. 핸드밀러로 잘라낸 빈 부분에 맞춰 폴리카보네이트를 자르고 합성수지를 이용하여 부착한다.
6. 수정작업 마무리 후 폴리카보네이트 부분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에어 브러쉬를 이용하여 락카 페인트로 채색한다.
7. 채색 작업 마무리 후에는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우레탄 투명 페인트로 코팅을 해준 뒤 건조 후 마스킹테이프를 뜬다.
8. 합성수지의 기와바위섬이 조명박스에 걸쳐져 벽면에 걸릴 수 있게 기와바위섬의 뒷면의 사이즈에 맞춰 조명박스를 만들어 조명을 설치한다.

## 작품설명

[기와바위 섬]의 집은 기와지붕이 바위섬 윗부분을 단단히 막고 있어 빛이 나갈 수 없다. 섬을 구성하는 바위벽은 쉽게 무너지지는 않지만 자연환경에 의해 침식되어 언젠간 소멸해 버릴 듯 보이게 표현하였다. 바위로 된 벽에는 작은 창들이 있다. 창을 통해 빛이 나오고 있어서 삶의 형태가 있는 섬인 것을 알 수 있다. 삶의 형태가 있다 해도 바위로 된 벽면에는 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실질적인 빛의 왕래가 가능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기와바위섬]은 폐쇄적인 공간의 섬이며 왕래가 어려워 답답한 마음만 가지게 되는 별 섬 이다.



【작품 8】 별 심

## 【작품 8】 별 섬

연도 : 2016년

크기 : 39x33x37(cm)

재료 : Stainless steel, Traditional Korean paper, LED light

### 제작방법

1. 섬을 모티브로 하여 빛이 나아갈 수 있는 형태를 구상한다.
2. 3 $\emptyset$  스테인리스 스틸 환봉을 구상한 형태에 맞춰 절단기로 잘라 용접한다.
3. 용접한 스테인리스 스틸 환봉 선에 맞춰 한지를 자른다.
4. 스테인리스 스틸 환봉위에 자른 한지를 돼지표 본드로 붙인다.
5. LED조명을 넣을 35x35x6(cm) 조명박스를 제작한다.
6. 조명박스 안에 LED조명을 설치한다.

### 작품설명

별 섬은 실제 섬과 같이 해수면 윗부분만 보인다.

섬을 이루는 기하학적 구조들은 한 평면에서 시작되어 각기 다른 크기와 색 그리고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의 섬을 형성한다. 섬을 구성하는 기하학 도형들은 전체적인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안정감을 주고 다른 별 섬들과 다르게 떠있지 않고 라이트 박스위에 정착하여 빛을 내고 있다. 빛은 한지의 따뜻한 느낌으로 섬을 밝히고 있다. 본인에게 안정감을 주는 별 섬 중 하나이다.



【작품 9】 따뜻한 섬

## 【작품 9】 따뜻한 섬

연도 : 2016년

크기 : 28x29x62(cm)

재료 : Stainless steel, Traditional Korean paper, Light

### 제작방법

1. 상상한 떠다니는 섬을 스케치한다.
2. 3 $\emptyset$  스테인리스 스틸 환봉을 구상한 형태에 맞춰 절단기로 잘라 용접한다.
3. 3t 판과 20 $\emptyset$ 봉 파이프를 수직으로 용접하고 위 과정에서 용접한 섬 형태 뒷면과 용접한다. (벽에 고정하기 위함이다.)
4. 용접 마무리 후 스테인리스 스틸 환봉 선에 맞춰 한지를 자른다.
5. 섬의 뒷면을 제외하고 모든 스테인리스 스틸 환봉위에 자른 한지를 돼지표본드로 붙인다.(섬 뒷면의 한지는 조명 설치 후에 붙인다.)
6. 완성된 작품 내부에서 빛이 나올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한다.
7. 섬 뒷면의 한지 붙이기 작업을 마무리한다.

### 작품설명

[따뜻한 섬]은 해수면에 잠기는 섬의 밑 부분과 해수면위의 공간을 분명하게 나누었다. 섬을 이루는 구조들은 실제 암석들의 형상에 가깝게 만들어 특별한 방향성과 날카로움이 없는 자연에 가까운 섬을 표현하였다.

섬 안의 집은 온전한 평면에서 자리하였다. 지붕은 높게 솟은 지붕과 계단 형 지붕은 요새같이 구성하여 든든해 보이게 표현 하였다. 입구에는 넓고 높은 문이 있다. 문이 있음은 삶의 형태가 있다는 것이다.

섬의 모든 면은 한지로 채워 따듯한 느낌을 주었고 안에는 미니전구들을 여러 개 설치하여 섬 안에 다수의 존재가 있음을 표현하였다. 그 빛들은 섬과 집을 비추고 빛은 섬 전체를 은은하게 밝힌다. 한지로 된 섬은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빛을 투과하여 빛의 왕래가 가능하다.

가정 안에서 소외하며 살았던 본인을 가정을 이루는 하나의 존재로서 살고 있음을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10】 빛, 형태를 입다



【작품 10】 빛, 형태를 입다 I

## 【작품 10】 빛, 형태를 입다 I

연도 : 2016년

크기 : 54x36x43(cm)

재료 : Stainless steel, PVC film, LED light

### 제작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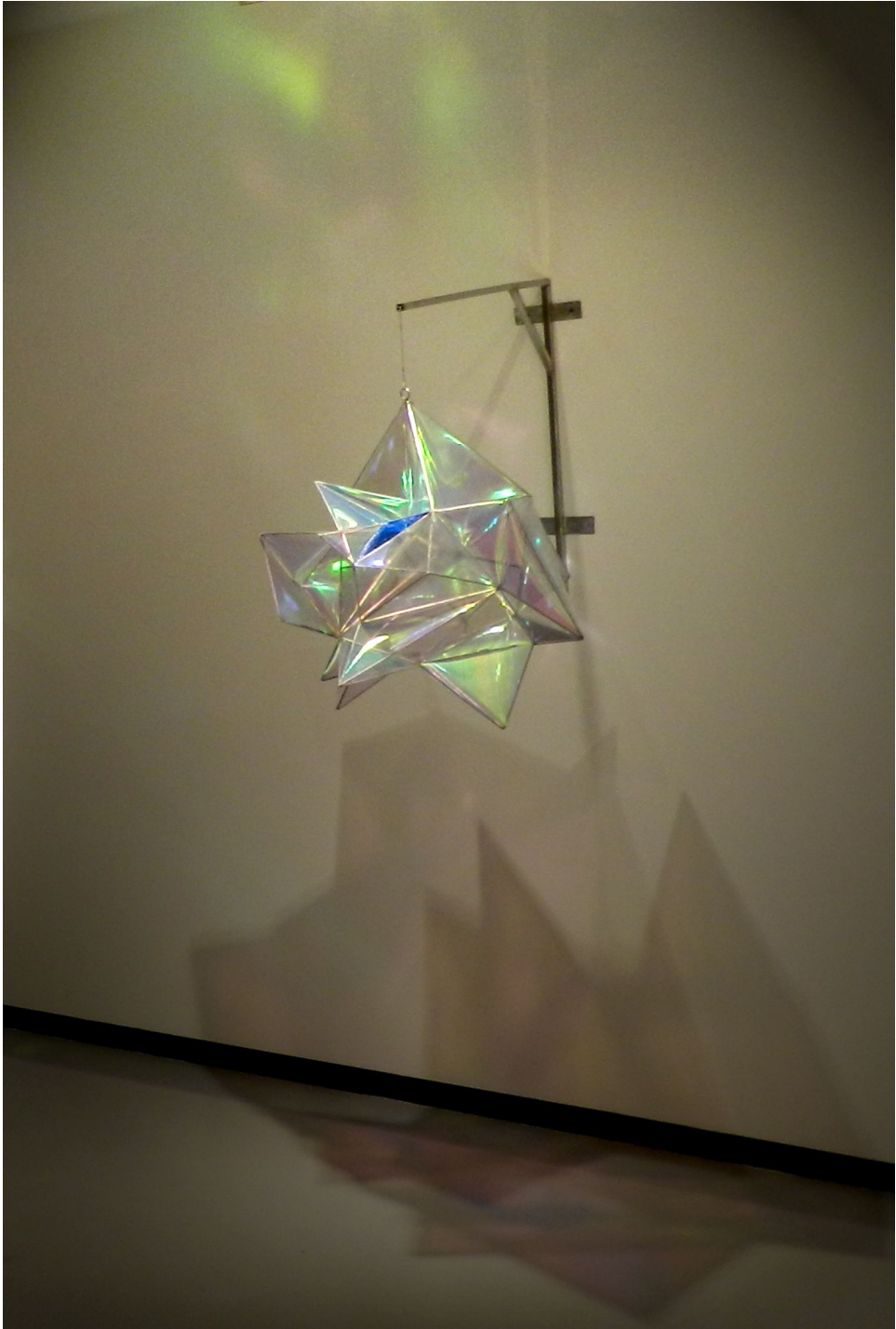
1. 섬을 모티브로 하여 빛이 나아갈 수 있는 형태를 구상한다.
2. 3∅ 스테인리스 스틸 환봉을 구상한 형태에 맞춰 절단기로 잘라 아르곤 용접한다.
3. 용접한 스테인리스 스틸 환봉 선에 맞춰 PVC 필름을 자른다.
4. 스테인리스 스틸 환봉위에 자른 PVC 필름을 테이프 본드로 붙인다.
5. 조명기구를 넣기 위해 스텐 1.2t로 완성된 형태의 밑면에 맞춰 7cm높이로 띄울 수 있게 스텐 구조물을 제작한다.
6. 스텐구조물 안에 LED조명을 설치한다.

### 작품설명

자립하는 시기가 되면서 사회활동에 있어서 표현이 잘 되지 않는 것이 본인 무의식속 억압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무의식속 억압으로 인한 자기 소외는 불안을 형성하였다. 본인은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억압을 풀어내는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

한 점을 중심으로 발산하는 형태의 역삼각형 구조로 기하학적 도형들을 구성하였다. 중심으로 부터 강한 빛이 나오게 하여 역삼각형 구조의 그림자가 작품에서 나오는 분출의 느낌을 확산 시키도록 표현하였다.

작품을 통해 내제 되어 있는 나를 대면하여 잘 드러내지 못했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작품 11】 빛, 형태를 입다Ⅱ

## 【작품 11】 빛, 형태를 입다Ⅱ

연도 : 2016년

크기 : 54x60x58(cm)

재료 : Stainless steel, Hologram film, LED light

### 제작방법

1. 빛이 나아갈 수 있는 형태를 구상한다.
2. 3∅ 스테인리스 스틸 환봉을 구상한 형태에 맞춰 절단기로 잘라 용접한다.
3. 용접한 스테인리스 스틸 환봉 선에 맞춰 홀로그램 필름을 자른다.
4. 용접한 스테인리스 스틸 환봉위에 자른 홀로그램 필름을 돼지표 본드로 붙인다.
5. 20x20 각 파이프를 ㄱ자로 용접하여 별 형태를 고정시킬 지지대를 만든다.
6. 마무리한 별 형태를 와이어로 지지대와 연결하여 띄운다.

### 작품설명

본인은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다가 사회생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적응하는 자신에게서 상실감을 느끼고 소외현상임을 인식하는 자신을 별에 빗대어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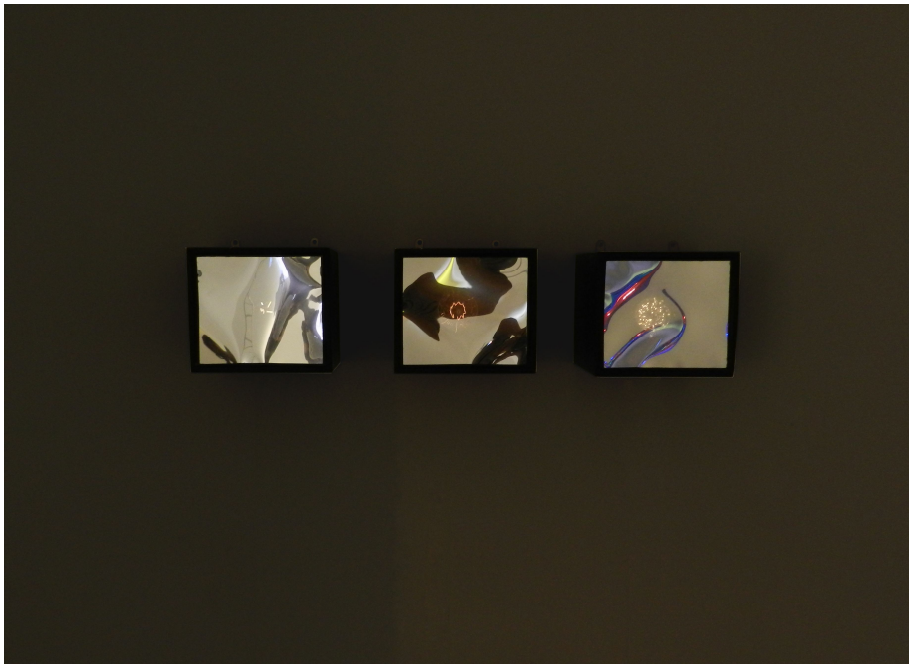
별은 공간 안에서 당연한 듯 반짝임을 내며 공중에 떠있다. 하지만 외부의 빛을 통해 반짝이고 있다. 별은 속이 텅 비어 있고 안정되지 않아 튀어나오는 형태의

기하학적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어 불안감을 형성하였다

별은 당연한 듯 공간 안에 떠있지만 실은 지지대에 의해 떠있었던 것이고 빛이 별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빛으로 자신이 빛나고 있음을 늘어진 그림자를 통해 알게 되면서 상실감과 함께 공허한 별을 인식한다.



【작품 12】 나를 보는 시간



【작품 12】 나를 보는 시간

## 【작품 12】 나를 보는 시간

연도 : 2016년

크기 : 25x25x23(cm)

재료 : PVC mirror film, light\_2016

### 제작방법

1. MDF합판 9t를 재단하고 타카로 고정하여 25x25x23(cm)의 상자를 만든다.  
이때 뒷 판(벽면 쪽 판)은 2-3cm 정도 상자 안쪽으로 배치한다. (뒤쪽에서 전구 소켓연결을 하기위함이다.)
2. 상자의 틈에 핸디코팅을 바르고 마른뒤 사포를 이용하여 먼 정리를 한다.
3. 수정한 상자에 수정 프라이머를 바른 뒤 에어브러쉬를 이용하여 페인트로 채색한다.
2. 채색 작업 마무리후 상자 뒷 판(벽면 쪽 판) 중앙에 60∅ 원형 구멍을 뚫는다.
4. 구멍을 통하여 전구를 연결하는 소켓부분이 상자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소켓을 고정한다.
3. 소켓에 전구를 연결한 후 PVC 거울필름지로 상자 앞면을 막고 검정 실리콘으로 고정한다.

## 작품설명

본인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내면의 감정을 소외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사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작품 안에서 별은 전기에너지로 발생하는 빛으로 표현하였다. 별을 현실공간과 분리시키기 위해 나무박스로 빛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 작품의 별 빛은 왜곡된 거울 필름지를 통해 바라볼 수 있게 설치하였다. 왜곡된 거울 필름지를 통해 별 빛을 바라보며 거울필름지에 반사된 왜곡된 나를 볼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왜곡된 형태는 과장, 소멸, 다중 등이 나타난다.

별과 '나'사이에 왜곡된 거울을 통해 '나'의 감정을 인식하게 되는 것을 작품으로 표현했다.

### III. 결 론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본주의적사회의 특성상 많은 이들이 소외를 경험하고 그로 인한 불안 우울 공허의 감정을 느끼곤 한다. 대부분의 사람에게겐 적절한 방어기제가 형성되어있어 자신의 상황을 잘 넘기고 살아가지만 잘 넘기지 못하게 되면 신경증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자신이 불안정하면 사회 안에서 부적응을 하게 되는데 이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물안개구리로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만든다. 본인은 우물 안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면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어떠한 가치관도 갖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본인은 자기소외로 인해 환경적응에 있어서 불안감이나 무기력한 감정들이 롤로 메이(Rollo May, 1909~1994)의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의 책을 통해 현대인들의 정신과 심리를 살피고 프로이트의 이론을 통해 본인의 불안을 고찰하였다. 현대인으로서 소외현상 겪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인은 다른 빛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빛을 밝히는 별을 바라보며 사유의 시간을 갖고 본인의 내면에서 표현 욕구를 끌어 올리게 되는 힘을 얻게 되었다. 본인의 내면 감정을 별이라는 상징적 형상으로 만들고 상징적 형상 안에서 기하학적 구조와 빛을 통하여 감정을 드러내어 자신의 태도와 그로 인한 감정을 확인하였다. 본인의 억압된 실재를 끄집어내어 감정을 확인하고 주체적으로 상황을 인식하여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본인에게 위안과 힘을 주는 상상의 별을 만든 것이다. 별이라는 자유로운 공간 안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환경을 자유롭게 만들고 다양한 재료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였다. 본인의 내면감정에 따라 빛을 설치하여 자신이 존재함을 드러내 소외로 인한 불안한 감정을 확인하고 극복하도록 하였다.

이번 작업은 무의식적으로 숨어버린 자신에게 다가가간 시간이 되었고, 의도에 따른 작품 표현방법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이는 앞으로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힘의 원천이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롤로메이, 백상창 옮김,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 문예출판사, 2015
- 김홍기 저, 『건축 조형 디자인론』, 기문당, 2008,
-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Otto Friedrich Bollow), 이기숙 역,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2011

### 《논문 및 학술지》

- 김정희, 「도시풍경과 빛의 사진적 고찰」,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2008
- 김해진, 「20세기 이후 인체조각을 통한 인간의 내면세계(감정)표현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2014
- 김현숙, 「소외의 미학-박수근 작품세계의 기초」, 한국근현대미술사학3
- 서영상, 「빛의 조형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여수대학교, 2001

### 《홈페이지 및 기타》

- <http://althwldna.tistory.com/search/노이로제>
- <http://pics-about-space.com>
- <https://www.spacetelescope.org>
- 두산백과 [http:// www.doopedia.com](http://www.doopedia.com)
- 네이버 지식백과 [http:// www.terms.naver.com](http://www.terms.naver.com)

# ABSTRACT

## The Study on Expression of Inner World Projected on Starlight

-around my works-

Ryu, Jee-yeon

Public Art Major

Department of Convergence Design Art

Graduate School of Beauty Convergence

Sungshin Women's University

Modern people pursue material value of better life than previous days and live on according to changes indebted to material abundance and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sup>37)</sup> Also, they fit themselves to other's eyes so as not to be behind the society having been changes, and make a living as a member of group by setting up value of life and standards. Anyone want to live happily by achieving goals in life, but they become to be swept to emptiness or to suffer from loneliness and unrest. These phenomena belong to human alienation<sup>38)</sup> that appears periodically by experiencing complicated and confused

---

37) Kim Hae-jin, A Study on Inner World (Emotion) Expression through Human Sculpture after 20th Century(MA. diss., University of Seoul, 2014): 4

38) Human alienation(人間疎外): This means becoming dehumanization because humanity having been kept originally by human was deprived. [Naver Knowledge Encyclopedia] (Doosan

situations compared to the past in the materialized modern society. These problems affect bad influences to personal mental health, and become factors of unsettling our social system itself. Therefore, self-overcoming of modern people is necessary through healing and consolation by checking mental status derived from alienation phenomena.

Researcher did work to overcome feeling of unrest owing to alienation phenomena as a modern man. Starlight of night sky became an object of thinking about oneself in the daily life, and the space of consolation which could overcome through starlight, thus an latent inner feeling due to own alienation was expressed in my work after containing it. This study was composed same as follows based on work having been produced in 2016.

In Chapter I Introduction, research directions and purposes of my work were described. In Chapter II Main Subject: First, statement on alienation and uneasy psychology related to myself as work formation background, and what the starlight mean to myself was described. Second, geometric structure of stars shown at my work in relation with work expression, meaning of symbolic shape and expressing methods of starlight were described. Third, my work was analyzed individually based on the description.

In Chapter III Conclusion, developmental tasks and directions to go regarding expressing methods on my work were suggested after arranging described contents in this study.